



우리팀은요?

전자산업의 중심 「전자산업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팀 지난해 10월 팀이 구성된 이후 계속되어온 전자산업팀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비범하고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것이 팀의 색깔이다.

전자산업팀의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정보가전제품의 핵심인 디지털TV의 내수와 수출을 촉진하기위한 활성화를 추진 ▲제조물책임법 시행관련 업계 애로 개선 ▲특별소비세법의 특소세율 인하 및 경감업무 ▲중소 가전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전자의료기기산업협회의 활성화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 ▲전자의료기기 DB구축 ▲인터넷TV산업협회의 활성화 ▲보안장비전시회 한국관 참가 ▲DVR산업협회의 활성화 등 많은 업무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근 팀장, 오수경 과장,
뒷줄 왼쪽부터 윤동엽 과장, 임순희 사우, 김현기 과장

전자산업팀의 구성원으로는 이상근 팀장, 윤동엽 과장, 김현기 과장, 오수경 과장, 임순희 사우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근 팀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사내의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인 신우회 회장을 맡아 매주 수요일에 모임을 통한 믿음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4회에 걸쳐 불우한 이웃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남모르게 선행을 행하여 사내의 여직원부터 시작해서 밖으로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업무에 있어서는 입사후 20여년 동안 산업부에서만 근무한 경력으로 많은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두철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발휘하여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자산업팀의 표지모델인 임순희 사우는 항상 웃는 모습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직원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업무에 대한 순발력과 친철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퇴근후 자기개발에 열심인 학구파의 직원이다.

김현기 과장은 듬직한 체구에 걸맞게 말 수가 적지만 담당업무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준비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가전 3사를 비롯한 대기업과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서적과 관련서적을 탐독하여 다방면에 걸쳐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재능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가전업계의 현안인 특소세 인하에 노력하여 답변을 받아냈으며, 제조물책임법, 디지털TV 활성화방안 등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오수경 과장은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는 물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팀에 매우 필요한 인재이며 특히 모든 종목에 걸친 운동 마니아로 사내의 여직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얼마전에 개최되었던 창립25주년 체육대회에서는 아쉽게 최우수선수상을 놓치고 말았다. 오수경 과장은 요즘 의료기기 이동순회전시회에 대한 준비와 독일 MEDICA전시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전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엽 과장은 보안기기와 인터넷TV산업협의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을 좋아하여 매주 집 근처 도봉산을 오름으로 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보고 있다.

윤동엽과장은 외모에서 풍기는 푸근함으로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유머감각까지 뛰어나 직원들과의 친분관계도 돈독하다. 최근에는 DVR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다.

전자산업팀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의 범위와 산업전반에 걸친 업무영역을 담당하여 우리 회원사와 국내 전자업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업체에 필요한 사안을 발굴코자 팀원 전체가 발로 뛰는 업무로 회원사에 다가서고 있다.

【 전자산업팀 연락처 】

대표전화 : 553-0941(300~304)

554-4126(직통)

팩 스 : 565-5804

- 팀장 이 상 근 (교 300) sklee@eiak.or.kr
- 과장 윤 동 엽 (교 301) dyoon1@hanmail.net
- 과장 김 현 기 (교 302) hgkim@eiak.or.kr
- 과장 오 수 경 (교 303) andy@hanmail.net
- 직원 임 순 희 (교 304) Openness@lycos.co.kr